

생명정치를 넘어: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조에윤리학*

성 정 혜

단독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복제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는 카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를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탐색해 볼 수 있는 텍스트로 바라보면서, 이 둘 사이의 관계와 포스트휴먼 생명윤리를 읽어보려고 한다. 포스트휴먼 생명윤리는 생명/죽음을 권력과 정치의 맥락에서 읽기 시작한 미셸 푸코의 논의에서부터 찾아보려 한다. 푸코의 생명 정치를 비판, 확장한 조르지오 아감벤을 거쳐 포스트휴먼시대의 생명정치가 갖는 윤리적 시사점을 찾아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복제인간이라는 비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는 본 텍스트에서 인간 종 너머와의 대화를 관찰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명과 죽음을 생명 정치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로지 브라이도티의 조에윤리학으로 확장시켜 사유해본다. 복제인간의 삶이 인간중심의 근대적 생명 정치를 은유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읽고, 나아가 생명과 죽음을 재위치시키는 포스트휴먼 조에윤리학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본다.

주제어: 『나를 보내지 마』, 생명정치, 벌거벗은 삶, 복제인간, 조에윤리학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1213)

I. 서론

포스트휴머니즘은 1990년대 후반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캐서린 해일즈(Katherine Hayles), 닐 배드밍턴(Neil Badmington)등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두되었다. 이후 본격적 연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트랜스휴먼’ 혹은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과 시대를 대표하는 어휘가 된 듯하다. 포스트휴먼 담론에서 혹은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이 산재하지만, 비인간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위치 짓기는 그중에서도 시급하면서도 결정이 쉽지 않은 과제 중의 하나이다.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2017년 BBC 라디오 채널 4에서 트랜스휴먼 시대의 노동윤리에 대해 강연하면서 “기계가 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것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분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Public Philosopher”).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수월하게 해주고 신체의 향상을 지원하여 준다는 트랜스휴먼적 선언 뒤에 놓인 각종 사회적 이권과 정치적 욕망의 얼개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질문은 기본적인 삶의 질의 향상이나 동일한 노동을 통해 얻는 경제적, 육체적 이익을 넘어 생명과 죽음이라는 생존의 문제에 다다르게 되면 분노나 기쁨과 같은 정서로 설명하기 힘들어지는 지점을 만나게 된다.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를 고민하고 나아가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의 경계를 고려한다면, 그 얼개들은 더 복잡해지고 갈등은 고조될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사안들로 인해 포스트휴먼 지구에서 인류가 직면하는 곤경과 위협은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시대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인간 생존의 문제,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의 고찰이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이르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명제는 ‘더 건강히 오래 살거나’, ‘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게 되었다. 생명과 죽음이 자연적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기술적 간섭이 가능한 영역임을 확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체에 다양한 인공물을 부착하거나 장기이식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기능을 강화하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급

격한 방식으로 인간 신체와 인공물의 경계를 흐리고, 나아가 인간과 인간 아닌 것들과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몸이 기계와 매개된 물리적 현실과 이를 둘러싼 정치구조위에서 포스트휴먼 조건은 “우리 종과 우리 정치체 그리고 지구 행성의 다른 거주자들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기본공통의 참조 단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8).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의 출현으로 새로운 타자를 맞이한 인류는 조만간 복제인간이나 안드로이드와도 공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타자를 만나게 되고, 이는 새로운 관계정립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재구성(reconfiguration)하는 작업”(Braidotti, *Transposition* 15)이 필요하다.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가 제안하는 근본적 재구성은 이 일이 가능해진다면 인간/비인간/인간 아닌 것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제하고 있다.

문학의 영역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가 도래하기 오래전부터 인간 아닌 타자와의 관계맺음에 대한 상상과 통찰이 지속해서 제시되어왔다.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1818)에서부터 시작하여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 세계』(1932), 필립 딕(Philip K. Dick)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1968)와 같은 문학작품에서는 낯선 타자와의 마주침과 관계 형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철학적 접근과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아닌 타자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라는 시각에서부터,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통제되지 못하고 추구되었을 때의 위험과 파국적 결말에 대한 윤리적 인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사유까지 시도하였다. 문학적 상상력은 작품에서 보여주는 파국적 결말이나 무절제한 인간의 욕망이 초래한 위험에 대한 경계심보다 더 많은 통찰을 내포하고 있음은 여러 작품 분석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인간과 인간 종을 넘어서는 타자와의 접점을 탐색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다층적으로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 윤리성을 이해하

는 선행적 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선 작품들에서 제기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카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 2005)에서 제시되는 양상을 찾아보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명 윤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복제인간의 교육과 성장, 그리고 사랑과 죽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을 사유할 수 있는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다루는 정치 권력과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 둘 사이의 관계, 그리고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생명윤리는 브라이도티의 조에윤리학에 비추어 분석하려 한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간과 인간 아닌 생명체 혹은 물질들과의 관계의 재사유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인간의 조건, 생명과 죽음의 관점을 기존의 인본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사고할 수 있는 틀을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된 조에, 즉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의 개념에서 찾는 작업을 한다. 본 연구는 이 관점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적 관계맺기의 가능성과 비판의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브라이도티의 조에윤리학은 생명정치의 관리, 통제와 그 과정에서 내재한 폭력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푸코와 아감벤의 논의를 발전, 확장시키고 있으므로 본 연구 역시 생명정치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거쳐 조에윤리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005년 발표한 『나를 보내지 마』는 소재의 독특성과 플롯의 간결함, 그리고 사랑과 죽음이라는 애뜻한 감수성이 더해져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작품은 상상적 존재인 복제인간 3명의 성장과 이들의 삼각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마치 인간들이 그러하듯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수행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삶을 연장할 방법을 찾는다. 이런 요소들과 이시구로의 독특하면서도 잘 고안된 서사방식으로 인해 본 작품은 미지의 대상인 복제인간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촉발하였다.

작품의 다양한 주제와 독자들의 관심, 그리고 작가의 노벨상 수상등의 요건까지 더해져서 최근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복제인간이라는 과학적 소재로 인해 이 작품을 공상과학소설로 분류하고 SF장르의 맥락에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이경란, Lee; McDonald; Kim). 다만, 작가가 장소나 시간의 현재적 설정이나 복제인간의 삶을 인간의 삶과 크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특별히 공상과학소설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보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대체역사(alternative history)나 평행우주(paralleled universe)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Kim 206-209). 시공간의 사실성뿐만 아니라 마가렛 앳우드(Margaret Atwood)가 공상과학소설과 추론소설(speculative fiction)을 구분한 분석에 따라 이시구로의 작품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깊게 성찰하고 추론한”(이경란 78) 소설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을 성장소설로 보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해결,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도 다수 존재한다. 자서전적 소설로(McDonald), 또는 복제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에 대한 논의나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창의성, 예술성을 탐색하는 텍스트로 읽기도 한다(현재연). 작품의 주인공 캐시의 믿을 수 없는 서사방식에 대해 탐색하거나, 독자의 예상을 뒤엎는 서사가 가져오는 공감의 측면과 서사의 반복 및 복제성(Black)에 관한 연구도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결같이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생명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복제인간의 장기가 도구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 개념으로 분석하는 논문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박선주; 이정현; Black; Kim)

기존 연구에서 복제인간의 도구적 생명에 대한 비판이 많이 분석되었음에도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과 푸코의 생명 정치를 면밀하게 함께 살펴본 논의는 드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명이 착취당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지점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제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이나 이루지 못할 사랑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권력에 대한 분석과 이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윤리적 시사점을 탐색해 보려 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 복제인간들이 저항이나 도주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장기 기증 절차를 거치는 결말을 포스트휴먼 조에윤리학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

으로 가기 위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와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이 분석, 발전시킨 생명 정치의 개념을 적용하여 생명이 다루어지는 양상에 대한 탐색을 선행한다.

두 이론가는 권력 관계에서 작동하는 생명/죽음 정치의 역학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내면서 근대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의하였다. 푸코의 놀라운 분석은 권력이 죽음을 다룰 때 인종주의를 개입함으로써 타인의 죽음을 합리화하는 인식에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 권력 이론을 아감벤이 윤리적 함의를 담아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와 연결시킨다. 즉 푸코의 논의를 수정, 보완하면서 생명 권력에 잠재된 폭력을 지적한다. 이들의 생명 권력에 대한 논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던 생명이 국가의 정치체제에 들어오면서 관리의 대상이 되고, 더불어 이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정치성을 부각시킨다. 생명 권력의 정치성은 『나를 보내지 마』의 복제인간의 삶에 명확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폭력을 제기하는 텍스트로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비윤리적 통치 권력의 통제와 억압에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선택은 로지 브라이도티의 탈-인간중심 포스트 휴먼 조예윤리학의 관점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비관적인 삶의 태도가 취하는 윤리적 역설을 마지막 논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타자의 생명을 다루는 방식: 생명 정치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는 1990년대 영국이라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에서 완벽하게 복제된 인간들의 삶을 상상한다. 인간과 구별이 불가한 안드로이드나 인공지능의 출현을 상상하는 공상과학소설(Science Fiction)은 상당수 발표되었으나, 대부분은 소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미래에 벌어지는 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작품의 시대 설정은 기존의 SF소설보다 복잡한 함의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현상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시공간 배경은 과거의 시점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작품의 복제인간은 과거의 경험 혹은 현재진행형인 어떤 현상에 대한 간접적 재현으로 생각해볼 여지를 강하게 남긴다. 이시구로가 이전 작품인 『남아 있는 나날들』(*The Remains of the Day*, 1989)에서도 화자인 집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Kim 201)는 점을 고려한다면 복제인간 역시 여성, 유색인, 성소수자, 난민 등 권력에서 배제된 자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작품은 평범한 간병인의 일상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주인공 캐시(Kathy H.)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한다. 31살이 된 캐시는 간병인으로 지내온 8년간의 삶에 대해 묘사하면서 자신이 돌보았던 장기 기증자들과의 일화를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캐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자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일의 고단함과 정신적으로 소진되어 간다는 캐시의 토로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아픔을 겪는 환자를 돌보아주는 간병인의 직업에 대해 고귀함과 존경을 품을 수도 있다. 그녀의 회상은 어린 시절로 이어지고, 기숙학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과의 놀이와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독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서서히 캐시와 그의 친구들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장기 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제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독자들은 인간과 복제인간을 구분하는 경계가 매우 흐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나를 보내지 마』에서 그려진 복제인간의 삶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 체계를 암시한다. 이 체계의 작동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푸코의 생명 정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인간이 죽고 사는 과정을 자연적인 순리가 아니라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주장하는 철학자이다. 그는 『성의 역사 1권: 지식의 의지』 5장에서 개인의 생명이 하나의 통치권 내부에서 다뤄지는 방식을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주권자가 신민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신민의 욕망으로 인해서이다. 신민은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주권자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통치하는 권리, 바꿔 말하면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푸코, 『성의 역사』 154)” 생살여탈권을 허락하게 된다. 근대로 넘어오는 18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주권 권력이 “살게 만들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생명 권력(푸코, 『성의 역사』 155)”으로 변화하는 것이었고, 이는 “인간-신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인간, 살아 있는 인간 존재를 겨냥”하며, “개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화하며, 인간-신체가 아니라 인간-종의 방향으로 이뤄진다(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91, 이하 『사회』)는 점을 강조한다. 얼핏 유사한 개념의 동어 변형처럼 보이는 이 분석은 실로 큰 차이를 내포하는 것으로 개별 인간-신체에 대한 규율, 감시보다 “탄생과 사망의 비율, 출산율, 인구의 번식력 등과 같은 과정 전체가 문제”(푸코, 『사회』 291)가 된다. 푸코는 이 새로운 정치를 “생명 정치”라고 부른다.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생명은 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이 관여하고 조절하고 증대시키고 확산시켜야 할 일차적인 대상”(진태원 220)이 된다.

권력이 생명에 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작품에서 모든 복제인간의 운명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떠올릴 수 있다. 이들은 최대 4번의 장기기증을 하도록 사회의 적극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최대한 건강하고 상처 없는 장기를 기증하도록 복제인간들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정기검진을 받고,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교육받는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이면서 1인칭 화자인 캐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받았던 일련의 관리들에 대해 담담하게 회상한다. 캐시는 16세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헤일섬에서 복제인간들은 “거의 매주 건강 점진 같은 것

을 받아야 했다(Ishiguro, *Never Let Me Go* 13, 이후 작품은 페이지만 표시)”고 기록한다. 그곳에서는 흡연이나 기타 신체에 해로운 어떤 행위도 금지되어 있었다. 주권 권력에서 생명 권력으로의 전환은 개별 신체에 대한 권력 행사를 넘어 종의 수준에서 생명을 관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복제인간의 신체는 장기증이라는 목적을 위해 생산되고, 그들의 장기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장기가 필요한 인간들에게 이식되기 위해서 관리되는 체계를 드러낸다. 맥도날드(Keith McDonald)는 이 작품이 “장기배양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유전공학과 복제기술이 적용되는 문화를 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고 평한다(76).

나아가 복제인간의 장기를 돌보는 신체관리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전체 인구의 생존률, 발병률 등의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루시선생님(Miss Lucy)과의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 경우에 흡연은 내 경우보다 훨씬 더 나쁘다. ... 각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내 경우보다 훨씬 중요하단다(68)”라고 말하는 이유는 복제인간의 생존과 건강유지의 최종목적 및 가치가 복제인간의 삶을 위해서가 아님을 시사한다. 복제인간은 철저히 도구적이어서 이들에게 생명 연장과 같은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복제인간들이 영혼을 가졌고, 그래서 인간과 유사하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각은 아니었다. [교육을 시작한]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생각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260)라는 비판적 응답만을 듣게 된다. 세상이 복제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의학용으로 존재할 뿐”이었으며 “시험관에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261)였다.

복제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신체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복제인간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분명 복제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어떤 제도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출생률, 발병률을 관리하는 생명 정치에서 복제인간의 죽음을 묵인하는 국가의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복제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제도와 그 제도를 유지하는 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푸코가 반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이 작품의 논의에도 상당히 유용하다.

생명을 대상이자 목표로 삼은 [생명] 권력의 테크놀로지에서는 죽이는 권리와 살해의 기능이 어떻게 행사되게 됐을까요? 본질적으로 생명을 최대화하고, 그 지속 기간을 연장하며, 그 기회를 증대시키고, 사고를 방지하며, 손해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권력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정치권력이 죽이고, 죽음을 요청하고, 죽음을 요구하고, 죽게 만들고,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자신의 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민까지도 죽음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 권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게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생명권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에서 죽음의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고, 죽음의 기능은 어떻게 행사될까요? (푸코 『사회』 304)

푸코가 던지는 질문들은 복제인간이 장기기증을 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명 권력으로 지칭되는 생명 정치에서 죽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묵인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복제인간이 은유로 기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되기도 한다. 푸코는 이 메커니즘이 가능하게 된 배경으로 인종주의를 지목하면서 “인종주의는 죽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사회』 306)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종주의의 두 가지 요소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첫째는 “살아야 할 자와 죽어야 할 자를 나누는 절단”이고, 두 번째로는 “타인의 죽음, 불량한 종의 죽음, 열등한 종 또는 퇴화된 자나 비정상적인 자의 죽음, 이것은 생명 일반을 더 건강하게 해주며, 더 건강하고 더 순수하게 해 줄 것”(『사회』 306)이라는 생물학적 관계이다. 헤일샴에서 에밀리 교장선생님(Miss Emily)과 마담(Madame)이 인본적, 도덕적 실천의 차원에서 실시한 새로운 실험, 즉 복제인간을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면서 창의성과 예술성을 계발하면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실험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복제인간을 위협으로 여기게 만들 뿐이었다. 복제인간이 인간과 동일한 존

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 인간은 죽일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음을 감지하면서 이 실험을 멈추게 된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거할 수 있는 복제인간을 배양, 양육하고 더는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다.

열등한 종의 죽음은 푸코의 분석에 따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죽음이 된다. “생명 권력의 체계 속에서 처형이나 죽음의 명령은 정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위협의 제거, 그리고 이 제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 자체나 인종의 강화를 지향할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사회』 306). 앞서 루시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학생 중 누구도 왜 흡연이 루시 선생님에게보다 자신들에게 더 해로운지에 관해서 묻지 않았다. 캐시는 “우리가 교사들, 그리고 바깥세상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69)고 회상한다. 헤일샴의 학생들은 그들의 신체가 타인을 위해 존재함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종국에 가서는 기증”(69)되는 다른 존재임을 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신체 돌봄은 자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푸코의 분석처럼 “생명 일반을 더 건강하게” 해 주기 위함이다. 이런 맥락에서 복제인간은 여성, 유색인, 성소수자, 난민 등 권력에서 배제되고 사회의 끝자락에 자리한 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은유로 독해가능하다.

2. 호모 사케르, 그리고 폭력

이처럼 푸코는 인종주의를 매개로 하여 타인의 죽음에 권력이 행사되는 기능을 설명한다. 그러나 『나를 보내지 마』에서 복제인간에게 행사되는 죽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감벤의 생명 정치 메커니즘에 대한 해석이 더욱 구체적인 도움이 되며, 조에윤리학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제공해준다. 아감벤은 푸코의 생명 권력을 바탕으로 하면서, 수정, 보완시키고 있는데 주권 권력과 생명 권력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주장한다. 이로 인하여 아감벤은 생명 권력에서 죽음을 다루는 메커니즘을 푸코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감벤의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주권 권력이 행사될 때 그 공동체에 어떤 신체는 포함되지만 배제되는 신체가 반드시 발생한

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애매모호한 포함과 배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아감벤은 그리스 시대부터 나치의 수용소까지 이어지는 서양 정치사를 관통하는 생명에 대한 두 개념을 제시한다. 이 두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발견되는 생명에 대한 개념으로 조예(자연적인 삶)와 비오스(정치적인 삶)로 나뉜다. 이때, 공동체에 포함되는 정치적인 삶, 비오스와 달리 정치적-법률적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삶,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이 존재한다. 아감벤이 벌거벗은 삶의 예로 주목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호모 사케르이다. 호모 사케르는 주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배제된 상태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누군가가 그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호모 사케르는 로마 시대의 국외 추방자에서부터 사형수, 그리고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는 서양정치사의 생명 정치가 벌거벗은 생명에 행해진 자명한 폭력의 행사임을 제시하고, 그 논의가 복제인간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복제인간은 생명 정치의 대상이며 그로 인해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의 강화와 생명 연장을 위해 죽임을 당한다는 푸코의 인종주의 해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푸코의 논의에서 윤리적 성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벌거벗은 생명에 가해지는 폭력의 개념이 필요해 보인다. 아감벤은 벌거벗은 생명의 예로 망명 신청자, 난민 등 인간적 삶을 살아야 함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물들을 제시한다. 작품의 복제인간은 법적 보호를 받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은 수용소에 갇혀 사는 수감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감벤은 무엇보다도 생명 정치의 가장 잔혹한 예를 보여준 것은 아우슈비츠라고 지적하였다(*Remnants of Auschwitz* 100). 이 사건 이후부터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인간/인간성(humanity)과 비인간/비인간성(inhumanity)의 공간에 단절이 일어났다고 바라본다. 블랙(Shameem Black) 역시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를 언급하면서 이 작품의 세계는 “근대적 전체주의 억압이라는 21세기의 유산을 깊이 상기시킨다”(789)고 지적한다.

캐시가 간병을 하면서 만났었던 한 복제인간은 캐시가 헤일삼 출신이라는 말을 듣

고서는 부러움의 표시를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노출하는 것은 꺼려한다. “도시에 있는 어떤 장소를 언급하는 순간, 검버섯 핀 그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찌푸려졌다. 그때 나는 그가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5)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대신 계속 캐시에게 헤일섬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때를 쓴다. 캐시는 그 때 헤일섬에 있었던 자신들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5)고 고백한다. 헤일섬은 특별한 장소였으며 교육의 환경과 대우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음은 이후 교장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교장 선생님은 헤일섬에서의 처우는 예외적이었다고 설명한다. 헤일섬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자란 복제인간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비참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이들의 삶이 수용소에 수용된 죄수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너희 헤일섬 학생들은 바깥으로 나온 지금까지도 세상의 실상을 반도 모르고 있어. 바로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통탄할 만한 상황에서 사육되고 있단다. 헤일섬 출신자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야. 헤일섬이 폐교되었으니 이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거다.

You Hailsham students, even after you've been out in the world like this, you still don't know the half of it. All around the country, at this very moment, there are students being reared in deplorable conditions you Hailsham students could hardly imagine. And now we're no more, things will only get worse.

(260-61)

헤일섬과 다른 장소에서의 교육을 구분하고 있지만, 헤일섬의 교육환경은 과연 얼마나 다른가라는 질문도 가능하다. 헤일섬의 학생들은 풍족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격리된 생활, 정기적 건강검진, 그리고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 인식적 장치들에 둘러싸여 자라왔다. 이러한 삶은 수용소의 삶을 상기시킨다. 우선 헤일섬은 그 위치가 인간 사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비밀스럽다. 그곳은 들어오는 유일한 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누군가의 출입이 분명하게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실제 외부에서 헤일섬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거의 없다. 성인이 된 이후 캐시는 헤일섬을 다시 찾아가기를 원하지만 헤일섬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드디어 찾았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헤일섬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6). 무엇보다도 헤일섬을 둘러싸고 있는 숲은 죽음과 연결되는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공포와 끔찍함의 대상이며 이를 바라보는 것도 금기시될 정도이다. 죽음과 연결된 산의 공포는 어떤 강한 두려움을 형성하여 헤일섬의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최고의 별은 눈을 뜨고 산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밤새 흐느끼며 우는 공포”(51)를 조성하기에 충분하였다. 숲이 죽음과 연결된 접점은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의 일화에서도 드러난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이 감금되었던 수용소에 전기가 흐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누군가가 농담을 하듯이 “언제든지 자살하고 싶을 때 울타리를 만지면 되겠네”(78)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장난기 어린 여느 학생의 자연스러운 농담처럼 다루어 지지만 헤일섬이라는 장소가 학생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는 역설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복제인간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 작품에서 가디언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헤일섬에서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이상을 알려주는 일이 금지되어 있음이 서서히 드러난다. 가디언 중의 한 명인 루시 선생님은 도중에 헤일섬을 떠났었는데, 학생들은 선생님이 갑자기 떠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캐시와 토미(Tommy)는 에밀리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루시 선생은] 너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했지. ... 그녀의 생각을 고려해보았지만, 그 선생이 틀렸다고 결론을 내렸어”(267)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의 존재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죽음의 과정으로 다가가는 생명은 사형집행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형수의 삶보다 낫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헤일섬에서는 책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전부이다. 캐롤(Rachel Carroll)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캐시나 친구들은 “자신의 출생이나 운명에 서서히 알게 된다”(6)고 언급한다. “들었으나 듣지 못한”(79) 것과 마찬가지로의 인식은 학생들이 이

장소를 벗어나거나 도망을 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복제인간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취하며 부과한 태도는 폭력적이다. 작품에서 복제인간은 인간과 다르다는 경계가 그어지며 이들의 죽음에 대해 묵인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벌거벗은 생명이 지닌 애매하고 양가적인 의미와 위치가 복합적인 태도를 유발한다. 즉, 죽어도 좋지만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벌거벗은 생명은 포함과 배제의 양가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특히, 포함과 배제라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념이 종교가 가진 경외심과 공포심의 대립적인 두 감정으로 치환, 설명되면서 호모 사케르의 개념은 서양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감벤 『호모 사케르』 165-66). 이러한 양가성은 인간들이 복제인간에게 갖는 신비감이나 낯섦이라는 감정과 공포심으로 구현된다. 이 가운데 정기적으로 헤일샴을 출입하는 외부 사람인 마담의 시선은 복제인간에게 부과된 양가적 감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준다. 캐시의 어린 시절 친구인 루스(Ruth)는 마담이 자신들에 대해 갖는 태도에 항상 의문을 품으면서 일종의 실험을 계획한다. 마담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불쑥 나타나서 마담을 놀라게 한 후, 그 반응을 지켜보면 실제로 마담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캐시는 그때의 기억을 다음처럼 회상한다.

나는 지금도 그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몸서리쳐지는 것을 애써 억누른 채 혹시 우리 중 하나가 우발적으로 자기 몸에 닿을까 봐 겁에 질려 있었다.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아챘다. [...] 마담은 우리를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미를 겁내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겁내고 있었다.

And I can still see it now, the shudder she seemed to be suppressing, the real dread that one of us would accidentally brush against her. [...] Madame was afraid of us. But she was afraid of us in the same way someone might be afraid of spiders. (35 emphasis original)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것과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공포심이다. 무엇보다도 “몸에 닿을까”라는 강한 혐오감, 그리고 “거미를 두려워하는” 방식의 공포는 서양의 대표적인 공포심을 상기시킨다. 마담은 복제인간의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 발굴해내려는 인도주의적 의지를 갖고 있기도 하였으나, 한편에서는 혐오와 공포라는 이중적 감정을 보여준다.

호모 사케르에 대한 양가적 태도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포함되면서 배제라는 대립적이면서 모호한 경계에서 발생한다. 이들은 인간 사회에 포함되어야 있어야 하지만 한편 배제된 채로 생활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복제인간은 항상 격리된 공간에서 그들만의 생활을 하고 상급학교인 코티지(Cottages)로 진학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후, 복제인간은 간병인으로 사는 삶을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다른 꿈을 꿀 가능성도 배제되고, 오직 간병인을 거쳐 기증자로 가는 선택지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간병인의 삶 역시 포함되어 있으나 배제된 삶의 다름 아니다. 이들은 인간 사회와 융합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

간병인으로서의 시기와 기증자로 삶을 사는 시기는 모두 호모 사케르에게 가해지는 동일한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캐시의 회상을 통해 듣는 간병인으로서의 삶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그 어느 것보다 비교될 수 없다. 간병인의 일이 잘 맞지 않을 경우, 이 일은 “모든 것이 정말이지 겨우겨우 헤쳐 나가야 하는 싸움”이면서 “고독”과 “외로움”에 휩싸여서 지내야 하는 일이다. 기증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좌절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것도 놀랍지 않은” 일이 된다(286). 캐시는 간병인으로 사는 삶이 갖는 처절함 가운데 혼자 감당하여야 하는 고통에 대해 토로한다.

어느 순간 간병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혼자 차를 몰고, 이 센터에서 저 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먼 길을 다녀야 하고, 토막잠을 자야 하고, 누구에게도 걱정거리를 털어놓을 수 없고, 누구와도 함께 소리 내어 웃을 수 없다. ... 늘 시간에 쫓기든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극도로 지쳐서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긴 근무 시간과 여행, 수면 부족은 존재의 내면으로 슬며시 들어와 당신의 일부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태도와 시선과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그 사실을 알아채게 된다.

Suddenly you're a carer. You spend hour after hour, on your own, driving across the country, centre to centre, hospital to hospital, sleeping in overnights, no one to talk to about your worries, no one to have a laugh with. ... You're always in a rush, or else you're too exhausted to have a proper conversation. Soon enough, the long hours, the travelling, the broken sleep have all crept into your being and become part of you, so everyone can see it, in your posture, your gaze, the way you move and walk. (208)

캐시가 언급하는 간병인으로서의 힘든 삶을 토로하는 장면은 캐시가 자신을 “인간이 라기보다 노동자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어쩌면 “장기를 제공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Kim 204). 이에 덧붙여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장기 기증자에게 들려주는 캐시의 이야기가 “복제인간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는 “소설을 더 역설적으로 만든다”고 설명한다(Kim 204).

간병인으로서의 정신적 고통의 강도나 육체적 노동의 고됨이 폭력의 진정한 행사 라기보다 복제인간이 간병인이 되는 일 이외에는 다른 삶의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폭력이다. 야외수업을 하던 어떤 날 발코니에서 피터와 고든은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미국으로 가서 배우가 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에 루시 선생님이 이들의 대화를 듣는 일이 발생한다. 안타까운 마음과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루시 선생님은 이들의 삶은 인간과 다르다는 설명을 한다. “너희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단다. 성인이 되면, 심지어는 중년이 되기 전에 장기 기증을 시작하게 된다. 그것야말로 너희 각자가 태어난 이유지. 너희는 비디오에 나오는 배우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야”(81). 복제인간은 간병인이 되어 자신과 같은 복제 인간을 돌보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복제인간이 최대한의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체제 안에 갇혀 있다. 호모 사케르의 죽음은 정치적 법제도 안에서 면책권을 받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감벤은 생명권력은 죽음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을 것이다.

결국 호모 사케르에게 죽음의 폭력이 이루어진다. 호모 사케르는 신성하지만 저주

받은 사람으로 호모 사케르에게 가해진 살해는 면책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호모 사케르에게 행해진 폭력은 신성한 것들에 대한 폭력과는 달리 신성 모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성스러우면서 저주받은 존재는 법제도 안에서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아감벤의 생명정치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 작품에서 복제인간의 죽음은 최대 4차례의 기증을 거치면서 서서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은 면책권이 부여된 살해와 같이 이루어진다. 복제인간의 삶에서 신체가 그들의 삶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제인간에게 성행위에 대해 교육할 때에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들이 헤일샴에서 교장 선생님인 에밀리 선생님에게 받은 성교육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외부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될 때 “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여야 한다. 또 “극도로 조심하여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때로 성관계로 인해 “싸우거나 죽이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이었다(84). 이때 분명히 암시되는 것은 이들의 신체에 가해질 수 있는 상처 또는 훼손이다.

아감벤은 그리스인들이 삶(생명)을 조예와 비오스로 구분한 것에서 『호모 사케르』의 처음을 시작한다.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구분은 근대의 주권 권력과 생명 정치를 거치면서 죽음에 노출되고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대상으로 틀지어졌음을 의미한다. 근대의 인간중심주의는 생명의 존엄성과 평등을 내세우면서도 어떤 종은 다른 종보다 더 평등한 역설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았다. 역사적으로 덜 평등한 종은 유대인, 노예, 집시, 정신병자들을 비롯하여 수용소에 갇힌 벌거벗은 생명이며, “근대복지 국가와 강제수용소의 작동방식에 대한 알레고리”(이정현 244)이기도 하다. 『나를 보내지 마』의 복제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푸코의 생명 정치에서 더 열등하고 비열한 죽음에 내몰린 인종이며,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의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열등한 인종과 벌거벗은 생명의 반복과 순환을 비판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윤리에 대한 포스트휴먼적 시각을 제시한다.

3. 탈인간중심윤리학: 조에윤리학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를 보내지 마』는 복제인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는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결말에 이르게 되면 캐시와 토미가 품은 한 가닥의 희망까지도 여지없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헤일삼 시절부터 캐시, 토미와 삼각 관계를 이루었던 루스는 마지막 장기기증을 앞두고 토미와 캐시에게 자신이 어렵게 알아낸 정보를 전해주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보라고 한다. 헤일삼 학생일 경우, 커플이 사랑함을 증명한다면 그 커플의 장기기증이 유예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루스가 죽고, 토미 역시 죽음에 임박해지자 토미와 캐시는 장기기증 유예를 기대하면서 헤일삼의 교장으로 있었던 에밀리 선생님과 마담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소문으로 들었던 유예절차는 거짓이었으며, 생명 연장에 대한 꿈은 환상일 뿐이었음을 확인한다.

인간들이 복제인간의 장기를 기증받아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달리 토미와 캐시가 희망하였던 장기기증 유예는 단지 몇 년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조에로서 정치적 삶(비오스)과는 명백하게 구분되었던 벌거벗은 생명이 이제 국가 구조 속으로 완전히 진입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심지어 국가의 정당성과 주권의 세속적 토대가 되었다(아감벤 『호모 사케르』 248)”는 설명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벌거벗은 생명은 그리스 시대보다 근대 국가에서 오히려 더 치밀하고 완전하게 생명 정치 메커니즘 하에서 작동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우선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던 20세기 후반 근대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받아들일 때, 이 작품에 나타난 생명 정치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강화하고 시민에서 인간으로, 시민권에서 인권으로의 이행을 통해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을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과정에 담겨있는 모순과 폭력”(박선주 143)을 은유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모순과 폭력 앞에서 복제인간은 죽음 이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작품의 주인공들이 내내 보여온 태도, 즉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운명에 대한 거부

가 거의 없다는 점은 여러 학자들이 주목한 지점이다. 이들의 순응적인 태도는 이 작품을 더욱 암울한 디스토피아 소설로 만든다. 그러나 로지 브라이도티는 아감벤의 별거벗은 생명, 조예의 개념을 수정, 보완하면서 확장된 생명의 개념, 조예를 제시한다. 아감벤의 ‘별거벗은 생명’은 여전히 근대의 기획안에서 인간의 죽음을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중심적이고 비오스에 머무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적 삶에 대비된 정치적 삶인 비오스를 강조하였지만, 브라이도티는 인간과 인간아닌 것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포스트휴먼 조건은 오히려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조예적 생명을 강조하여야 할 때라고 제안한다.

생명을 바라보는 사고의 확장 이외에도 조예적 통찰은 종의 상호작용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브라이도티는 기억이 가진 힘을 긍정한다. 기억은 생명과의 상호작용에 큰 기반을 두고 있는 행위로 “생명 자체의 정보를 자본화하는 정치경제학” 그리고 “반동적이거나 부정적인 범인류의 파괴적 측면들(『포스트휴먼』 179)”에 대항해 역반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작품에서 복제인간은 포스트휴먼 조건의 죽음 정치 체계 밖으로 일탈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지만, 대신 기억을 공유하는 행위에 의미를 둔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주체의 내적 일관성을 묶어내는 것은 그/그녀의 표현과 행위들, 그리고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의 내재성이며, 또한 기억의 힘, 즉 시간 안의 연속성(178)”이라고 말한다. 토미가 기증을 완료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본 이후, 캐시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기억은 결코 퇴색하지 않는다. 나는 루스를 잃었고, 이어 토미를 잃었지만 그들에 대한 나의 기억만큼은 잃지 않았다”(286)고 회상한다. 이 회상은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이들과의 관계맺음이 어떻게 영속될 것인지, 견디어냄을 통한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 다른 말로 죽음을 견디어내는 힘이 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캐시는 자신이 간병인으로서 기증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에 대해 직업적 성취감을 느낀다. 마치 국가 권력에 동조하여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공모자로 작동하는 듯한 캐시의 역할은 일견 역설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다분하

다. 좋은 간병인은 정말 그렇게 중요할 것인가? 그러나, 이어지는 캐시의 대답처럼 훌륭한 간병인은 기증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그것이 이러한 역설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증은 죽음과 생명의 연결이며, 인간의 운명을 이들의 죽음에 연계시킨다. 푸코의 생명 정치가 살아있는 것의 관리를 이해하게 하였다면, 조에윤리학은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훌륭한 간병인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나는 좋은 간병인이다. -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다. 좋은 간병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결국,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기증자들은 모두 기증을 할 것이고, 모두 동일하게, 그러면 그들은 완료될 것이다. - 그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훌륭한 간병인은 기증자의 삶이 진정 어떠한가에 대해 큰 차이를 만든다.

It's important there are good carers. And I'm a good carer. - But is it really that important? Okay, it's really nice to have a good carer. But in the end, it is really so important? The donors will all donate, just the same, and then they'll complete. - Of course it's important. A good carer makes a big difference to what a donor's life's actually like. (282)

포스트휴먼 죽음정치학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아님, 혹은 비인간의 생명을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고, 우리의 사고 안으로 그것들을 끌어안게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중심이 아니라 종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조에중심적 평등주의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며, 인간 종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게 해준다. 이렇듯 생명정치를 죽음의 맥락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주체성을 제기하는 조에윤리학은 고전적 휴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 사이의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III. 결론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는 복제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기계의 개입,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이라는 탈인간화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인간과의 공존의 가능성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았다. 그 문제점을 탐구하기 위해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권력의 역사를 푸코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확장시키면서 근대 정치사에 드러난 생명 정치의 폭력성을 아감벤의 논의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에 적용해보았다. 푸코와 아감벤의 생명 정치 논의는 그 범위가 넓고 치밀하여서 하나의 논문에서 논리적 구조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벅차기도 하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이시구로의 문학작품에 재현된 복제인간의 존재양상과 생명이 관리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생명의 규범화, 규격화된 권력의 작동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여긴다. 또한, 그 안에 내재된 폭력성 또한 설명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나아가 은유로 기입된 복제인간에게 이루어진 폭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윤리학적 성찰을 탈인간화된 조예평등주의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법론으로 기대는 푸코와 아감벤의 생명 정치는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전지구적이며, 이미 종료된 현상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더 깊이 이해하여야 하고 경각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생명 정치의 부정성과 파괴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적극적, 긍정적 포스트휴먼 윤리학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무엇보다도 비인간과의 관계맺음이라는 주제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 허물기를 환영하는 트랜스휴먼 진영에서나 지구적 근경을 대담하게 직면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먼진영에서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키워드이기에 계속해서 논의하여야 할 주제라고 여겨진다.

인용문헌

-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권: 지식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 2004.
- _____.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 콜레주드프랑스강의 1975~76년』. 김상운 옮김, 난장, 2015.
- 박선주. 「인조인간, “혈벗은 생명,” 포스트/휴머니즘: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카즈오 이시구로의 『날 보내지 말아줘』에 나타난 고아와 인간」. 『역사와 문화』 24 (2012): 129-52.
- 이경란. 「기술과학적 포스트휴먼 조건과 추론소설(sf): 카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와 윌리엄 깁슨의 『패턴 인식』」. 『영미문학연구』 28 (2015): 71-100.
- 이정현. 「생명정치와 디스토피아 문학」. 『어문론집』 73 (2018): 233-68
- 진태원. 「생명정치의 탄생 - 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학과사회』 19.3 (2006): 216-37.
- 현재연. 「『나를 보내지 마』, 디스토피아에서 발견한 생명과 예술의 힘」. 『영어권문화연구』 (2018): 259-280.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P, 199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_____.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Trans. Daniel Heller-Roazen. NY: Zone Books, 2002.
- Black, Shameem. “Ishiguro's Inhuman Aesthetics.” *MFS Modern Fiction Studies*, 55.4 (2009): 785-807. *Project MUSE*, doi:10.1353/mfs.0.1637.
- Braidotti, Rosi.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2013.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 _____. *Transpositions: On Nomadic Ethics*. Cambridge: Polity, 2006.
- Carroll, Rachel. “Imitations of life: cloning, heterosexuality and the human in Kazuo

- Ishiguro's *Never let me go*" *Journal of Gender Studies*, 19.1 (2010): 59-71.
- Ishiguro, Kazuo. *Never Let Me Go*. NY: Vintage, 2006. [『나를 보내지 마』 김남주 옮김. 민음사, 2009.]
- Kim, Dae-Joong. "Dialectics of Utopia and Dystopia and Bio-politics in *Never Let Me Go*." 『인문과학연구』, 36 (2013): 199-222.
- Lee, Kiha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within Science Fiction Discourse." *English & American Cultural Studies* 15.2 (2015): 185-208.
- McDonald, Keith. "Days of Past Futures: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as 'Speculative Memoir'." *Biography* 30.1 (2007): 74-83, 170-71. *ProQuest*, <http://search.proquest.com.ssl.access.ewha.ac.kr/docview/215617693?accountid=10785>.
- Sandel, Michael. "The Public Philosopher, Would Life Be Better If Robots Did All the Work?" *BBC Radio 4*, BBC, 7 Mar. 2017. www.bbc.co.uk/programmes/b08gxndc.

Abstract

Beyond Bio-politics: Posthuman Zoe-ethics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Sung, Junghy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specifically clones,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as well as the posthuman ethical stance in the text. To understand how life has been considered through human history and how life is depicted in the story, this study first discusses Michel Foucault and Giorgio Agamben's theoretical interpretations on bio-power or bio-politics. Foucault analyzed how bio-power has been employed to distinguish, discriminate, exploit and even kill the under-privileged such as slaves, immigrants and the poor in modern society. Agamben pushed Foucault's interpretation further and he described bio-politics' violence and inhumane treatment of human beings. The novel reveals the ways in which the mechanism of modern bio-politics works in order to rationalize the discrimination against clones. In this sense, the clones in the story can be regarded as a metaphor for the bare life from Agamben's analysis. This study also examines how Rosi Braidotti's posthuman ethics is developed in the text. The novel suggests an ethical realm in which to deal with the lives of non-human beings and a possible approach on how death could be perceived in the posthuman era.

Keywords: *Never Let Me Go*, Bio-politics, Bare Life, Clone, Zoe-ethics

논문접수일: 2020.01.22

심사완료일: 2020.02.27

게재 확정일: 2020.02.28

이름: 성정혜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4 102-602

이메일: may.jhsung@gmail.com